형용사 시소러스 설계에 관한 연구*

Design of Adjective Thesaurus

유명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yu7620@hanmail.net
Myung-Hee Yu, Dept. of Lib. & Info. Sci.,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

최석두,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sdchoi@ewha.ac.kr
Suk-Doo Choi, Ewha Womans Univ.

형용사는 감성 및 감정검색을 위한 색인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형용사의 개념관계를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의 개념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형용사의 특성, 관련 개념구조를 고찰하고, 아울러 구조화, 관계, 표시방법, 배열 등을 고려하여 형용사 시소러스를 설계하였다.

1 서론

일반적으로 정보검색시 이용자가 사용하는 용어는 명사이며, 형용사는 불용어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형용사는 감각이나 감정, 성질, 상태를 나타내므로 소리정보, 이미지나 색상 등과 관련된 미술정보 및 영상정보를 다룰 때는 중요한 핵심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이나 감정, 상태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것은 개인의 차이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료들을 일관성 있게 색인하기 위해서는 형용사 시소러스(용어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시소러스의 형태로 형용사를 가공해 두면 색인 및 검색시 정확한 형용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의 개념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형용사의 특성, 관련 개념구조를 고찰하고, 아울러 구조화, 관계, 표시방법, 배열 등을 고려하여 형용사 시소러스를 설계하였다.

2 형용사의 특성

첫째, 형용사는 상태를 표현한다. 대부분의 동사가 동작을 나타내는 것과 다른 점이다. 최현배(1984, 480)는 형용사를 "일의 몬과 바탈(性質)과 모양(狀態)과 있음(存在)의 어떠함을 그리어 내는 씨(풀이씨)이니: 무엇이 어떠하냐?에 대하여 그 어떠함을 대답함에 해당한 말"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떠함'은 바로 상태를 포함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미정(1987)은 모든 형용사는 예외 없이 상태성(stativity)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특성은 구체적인 통사현상에서 알 수 있는데, 즉 동사와 함께 어울려 현재 및 현재진행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은/는'은 형용사와 같이 쓰이지 못한다. 표 1의 '빠르다'를 예로 들면, "시간이 빠르-ㄴ-다"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현재 진행시제가 행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형용사의 상태성과 의미적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형용사는 감각이나 감정에 관련된 어휘가 발

* 이 논문은 2002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달되어 있으며, 동의어와 유의어가 풍부하다. 손용주(2000, 298)는 철학적 사색에 관한 어휘가 빈약한 반면 감각이나 감정방면의 어휘가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국어 어휘의 특질로 들고 있다. 또한 박창수(1980, 11)도 국어 형용사는 유의어, 동의어가 풍부하며 감각어가 매우 많은 점을 그 특성이라 하였다. 표 1은 '빠르다'에 관련된 뜻의 갈래들을 연세 한국어 사전, 뉘앙스 풀이를 겸한 우리말 사전과 한국어 형용사 사전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빠르다'를 움직임, 과정, 시간, 때(시기), 성질, 인지력, 경사에 따라 그 뜻의 갈래를 구분하였다. 그 뜻의 갈래에 따라 다양한 유의어들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셋째, 형용사는 다의성이 높다. 대부분의 어휘가 그렇지만 형용사는 다의성이 더 높다. 표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빠르다'는 움직임, 과정, 시간, 때(시기), 성질, 인지력, 경사에 따라 여러 갈래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는 명사와 같이 엄밀한 의미의 동의어가 많지 않다. 사용의 기준을 어떻게 얼마나 엄격히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심하다(이재윤, 김태수 1999). 표 1에서 보듯이, '빠르다'의 동의어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우에 '재빠르다, 신속하다'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르다'로 약간씩 다르며 이들을 '빠르다'의 같은 동의어로 다루기에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형용사의 용어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형용사의 의미 및 용어관계는 매우 모호하고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그러므로 용어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는 실제의 시스템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다음 용어관계들은 형용사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1 동의어

동의어는 광범위한 문맥에서 의미가 동일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환 가능한 용어로 정의된다. 명사류와 달리 형용사는 순수동의어를 찾기 힘들며, 사용 기준에 따라 그 차이가 심하다. 표 1에서와 같이

표 1 「빠르다」의 다의적 특성

	연세 한국어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1998)	뉘앙스 풀이를 겸한 우리말 사전 (임홍빈 1994)	한국어 형용사 사전 (박준하, 김병선 1991)
움직임	I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보다 짧다. 속도가 높다.	[1]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보통 정도를 넘는 상태에 있다. <유>재빠르다, 잽싸다, 날쌔다, 신속(迅速)하다. <반> 느리다, 더디다. <입> 빨르다	① 어떤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과정	I② 어떤 과정이나 일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다.	[2] 어떤 일이나 작용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 있다.	(ㄱ) 어떤 동안이나 과정이 짧다.
시간	I③ (시간적으로) 보통보다 앞서 있다.	[3] 어떤 것이 시간적인 순서에서 다른 것보다 앞선 상태에 있다. <유> 이르다. <반> 늦다.	② 어느 기준 시간보다 이르다.
때 (시기)	I④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에 때가) 이르다.	[4] 어떤 일이 생기는 데에는 시간이 더 있어야 하는 상태에 있다. <유> 이르다. <반> 늦다.	
성질 (입 또는 말을 대상)		[5] '입빠르다'와 같은 합성어를 이루거나 '입'을 주어로 하는 표현에서 주로 '입빠른'과 같은 형식으로 쓰여, 사람이 가만히 참고 있어야 할 일에 대하여 성급(性急)하게 말을 하는 성질을 가진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유> 재다.	
인지력	II① 알아차리거나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③ 알아차리는 능력이 날렵하다.
경사	II② (턱의 생김새가) 뾰족하다.		

'빠르다'의 유의어로 '재빠르다, 잽싸다, 날쌔다, 신속하다, 이르다, 재다' 등이 있으며 그 의미에 따라 동의어로 쓰일 수 있다. 즉, '빠르다'가 시간적인 순서에서 다른 것보다 앞선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이르다'는 '빠르다'의 동의어로 쓰일 수 있으나, 행동 방식이 빠른 것을 나타내는 '재빠르다, 신속하다' 등은 동의어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한 형용사 어휘에 대한 동의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해당 어휘에 대한 동의어는 그 어휘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만약, '빠르다'의 동의어로 '재다'가 제시된다면, 시간이나 과정 혹은 움직임이 빠른 것이 아니라 '성질'에 관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3.2 반의어

형용사의 반의어를 규정할 때 고려해야할 문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두 형용사가 서로 다른 반의어를 가질 수가 있다는 점이다(이재윤, 김태수 1999). 예컨대, '빠르다'의 반의어는 '느리다'이고, '급하다'의 반의어는 '한가하다'이다. '빠르다'와 '급하다'가 비슷한 뜻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반의어인 '느리다'와 '한가하다'가 서로 비슷하지는 않다. 이런 특성 때문에 Word Net에서는 비슷한 의미의 형용사간의 동의관계나 반의관계를 무리하게 설정하기 보다 유사관계 포인터(similar pointer)를 설정하여 그림 1과 같이 양극관계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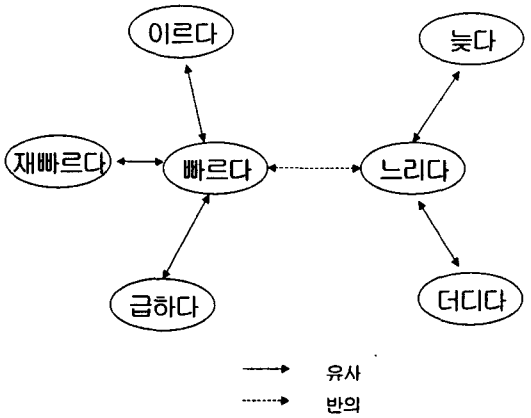

그림 1 형용사의 양극관계 구조

단어연상 실험에서 형용사가 제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의어를 연상하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로 반의어가 포함됨을 뜻한다. 또한 한 형용사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각 의미에 따라서 반의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형용사의 의미를 표현할 때에 반의어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이재윤, 김태수 1999).

3.3 유사동의어

유사동의어는 근사동의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의미가 상이하다고 인정되나 색인작업에서는 동의어로 취급하는 용어라고 정의된다. 유사동의어 집합은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어휘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의 '빠르다'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예) 빠르다
A = {재빠르다, 잽싸다, 날쌔다, 신속하다}
B = {이르다}
C = {재다}
D = {급하다}

유사동의어 집합 A는 '빠르다'가 동작임에 대해, B는 시간 혹은 때에, C는 성질, D는 경사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비슷하나 용법이 다른 어휘들을 동일하게만 취급한다면 범위가 한정될 뿐만 아니라 어휘의 서로 다른 특성들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림 2는 그림 1의 '빠르다'와 '급하다'를 중심으로 관계 구조를 재구성한 것이다. '빠르다'의 유사동의어로 '이르다, 급하다, 재빠르다' 등이 있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동의어 혹은 유사동의어 집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빠르다'가 '경사, 흐름'의 특성을 갖는 경우 '급하다'를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급하다'는 '경사, 흐름' 뿐만 아니라 '서두르는 상태'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즉, '급하다'는 특성에 따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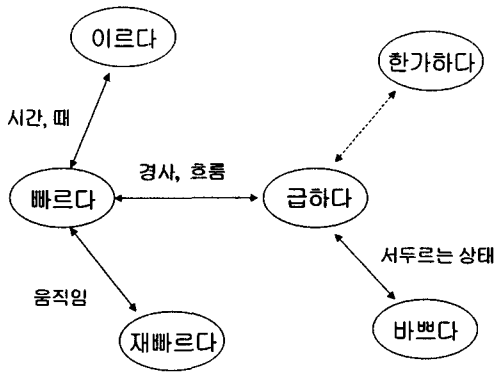

그림 2 「빠르다」와 「급하다」의 관계 구조

동의어로 '빠르다'와 '바쁘다'를 갖는다. 그러나 '빠르다'와 '바쁘다'는 서로 다르다. 이것은 그림 3의 벤 다이어그램(Venn Diagram)의 형식을 빌려 표현한 형용사의 의미관계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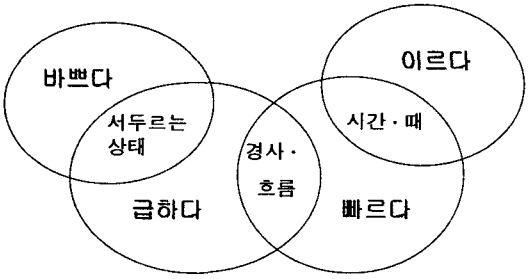

그림 3 형용사의 의미관계

따라서, 유사동의어로 표현되지 않는 이런 특성을 표현해 줄 다른 용어관계가 필요하다.

3.4 간접반의어 (유사반의어)

여기서 간접반의어는 한 형용사 어휘의 유사동의어에 대한 반의어이다. 이는 형용사의 모호한 다의적 특성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Miller 1998). 즉, 간접반의어는 그 어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한 어휘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유사동의어 집합과 더불어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보여 줄 수 있다.

다음 예는 '빠르다'의 유사동의어 집합에 대한 유사반의어를 표시한 것이다.

예) 빠르다

A = {재빠르다, 잽싸다, 날쌔다, 신속하다}
↔ {느리다, 더디다}

B = {이르다} ↔ {늦다}

3.5 관련어

유사한 의미를 가진 어휘 중에서 전술한 유사동의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관련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즉, 그림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빠르다'의 동의어 혹은 유사동의어로 표현되는 '급하다'는 관련어로도 처리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급하다'의 또 다른 특성인 '서두르는 상태'의 '바쁘다' 정보도 잃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어휘들 또한 관련어로 설정하여 각각의 차이와 특성에 관한 정보를 표현해 주어야 한다.

한 형용사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를 관련어라 하는데, 특히 색상 형용사의 상징적 의미와 관련된 어휘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손용주(2000, 220)는 형용사 '빨갛다'는 색을 나타내는 기본의미뿐만 아니라 '거짓말이란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분명한'이란 뜻으로 '빨간 거짓말' 혹은 '새빨간 거짓말'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비슷한 '붉다'는 '충성스런 마음이 변함 없는, 한결같은'이란 뜻을 나타내는 '일편단심' 혹은 '붉은 마음'으로 쓰이기도 한다. 혹은 '적색 구역, 적화(赤化), 적군(赤軍)'으로 쓰여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푸르다'는 '생동'의 뜻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연' 혹은 '희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만, 형용사 시소러스의 구조 내에서 관련어란 형용사형의 관련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상징적 의미와 관련된 어휘는 별도의 항을 만들어 부차적 의미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6 용례

용례는 해당 어휘에 대한 용법의 특징을 잘 보여주므로 비슷한 어휘 집단에서 정확한 어휘의 선택과 사

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컨대, '급하다'는 시간이 없어 사람이 서두르는 상태에 있는 것을 기본 의미로 하며, 어떤 일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지체 없이 해결되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가리키는 데 주로 쓰인다. 흐름이나 경사에 대해서도 쓰이나, 작용에 대해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반면, '빠르다'는 내부적인 사정에 관계없이, 주로 물체가 움직이거나 작용이 행해지는 속도가 보통정도를 넘는 것에 대하여 쓰인다(임홍빈 1994). 이 두 어휘는 다음과 같이 용례를 보면 그 의미의 차이가 명확해진다(예의 *표는 문법적 혹은 의미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임을 나타냄).

예)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빠르게 걷는다.
급하다고/ *빠르다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
부식(腐蝕)이 빠르게/ *급하게 진행되었다.

3.7 구어 (및 방언)

구어나 방언은 표준어가 아닌 이용자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해당 어휘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빠르다'에 구어인 '빨르다'라는 정보를 만들어 놓으면, 구어인 '빨르다'로 알고 있는 이용자라 할지라도 '빠르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가깝다'의 방언은 일반적으로 '가찹다, 가직다' 등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 준다면 '가찹다'나 '가직다' 어느 경우라도 '가깝다'의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

3.8 어원

어원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가깝다(近)'의 고어형은 '갓갑다'이다. 여기서 '갓'은 어근이며, 원의는 '눈(目)'이다. 이것은 가깝다, 멀다라는 인식은 시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서정범 2001).

3.9 격관계

앞의 의미와 관련된 특성이외에도 형용사의 통사적인 특성에 따라 격관계 정보를 첨가할 수 있다.

표 2는 유현경(2000)이 형용사의 격틀과 논항정보, 해당 유형, 용례 등을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축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형용사의 유형별 분포 및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격틀과 그에 따른 논항정보를 형용사의 용어관계에 넣는다면 형용사 관련 정보가 더욱 풍부해질 뿐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형용사 어휘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10 본디말/준말, 큰말/작은말, 거센말, 센말/여린말

표제어에 대한 본디말 혹은 준말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동의어로 처리할 수 있다. '큰말/작은말, 거센말, 센말/여린말'은 순수동의어로 보기에 무리가 따르지만 필요에 따라 유사동의어로 처리 가능하다. 그러나 큰말이지만 용법이 달라지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련어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 예로 '가득하다'와 '그득하다'를 보자. '가득하다'는 일정한 부피나 들이의 남은 공간 없이 꽉 찬 상태를 말하며, 액체, 고체, 기체 상태의 물질 및 냄새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득하다'의 큰말인 '그득하다'는 물체나 물질의 양이 많은 것에 주로 쓰인다. 금은보화가 많을 때에는 다소 빈 공간이 많이 남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표 2 형용사 데이터베이스의 예

표제어	동형어 번호	형용사 유형	격틀	논항정보	예문	참고정보	품사
가뿐하다	1-1	성상	1이 -	1:구체	제법 축축했던 자루가 _가뿐하게		형
가뿐하다	1-2 .	감각	1이 2가 -	1:사람, 2:몸, 마음	여태껏 준비해온 일이지만 힘들게		형
가쁘다	1	감각	1이 2가 -	1:사람, 2:숨	그녀는 숨이 _가빴는지_ 속이		형
가상하다	1	성상#보통	1이 -	1:추상~ '-것' 들의	아이의 춤이 가상하여 머리를 쓰다		형
가소롭다	1	대상심리	1이 2가 -	1:사람	이전에 그의 허세가 사람들에게		형

자료: 유현경(2000)의 형용사 데이터베이스(FoxPro)의 예를 표로 재구성.

3.11 파생어

파생어는 광범위하게 생성되며, 특히 색상 혹은 미각을 나타내는 형용사에서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색상관련 파생어를 보면, '붉다'에 대하여 '불그스럼하다, 불그레하다, 불그족족하다, 뽈그리하다' 등으로 파생된다. 파생어에 관한 정보는 우리말 형용사의 장점인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의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미각을 나타내는 형용사 중에서 '달다'의 경우를 보자. 단맛이 조금 들어 있는 경우 '들척지근하다, 들큰하다, 달착지근하다, 달큰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맛이 많이 있는 경우 '달콤하다, 달코롬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용어관계의 표현

시소러스에서의 의미관계는 계층, 동의, 관련의 세 관계를 기본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형용사간에는 계층관계가 없다는 것이 일반 시소러스와 다른 점이다. 형용의 정도가 계층에 가깝지만 계층관계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3장에서 논한 형용사 용어관계의 특성을 포함하여 관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형용사 어휘	<본디말>	
한자	한자	
외국어	외국어	
분류	기호	
정의	문장형식	
패싯	패싯지시어	
동의어	어휘	
	어휘	<고어>
	어휘	<구어>
	어휘	<방언>
	어휘	<준말>
유사동의어	어휘	
	어휘	<큰말>
	어휘	<작은말>
	어휘	<센말>
	어휘	<여린말>
	어휘	<거센말>
	어휘	<파생어>
관련어	어휘	
반의어	어휘	
어원	어휘	
함의	어휘	
격관계	특정형식	
용례	문장형식	

이 형용사 시소러스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의어' 및 '유사동의어'에 대하여 어휘의 속성을 부기하여 서로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첫 항목인 '분류, 패싯, 동의어, 관련어 .....' 등은 관계지시기호이다. 관계지시기호의 배열순서는 임의로 바꿀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약어, 두문자어, 로마자 등 다른 기호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이다. '한자, 분류, 외국어, 정의, 패싯'은 해당 용어의 참조정보로서 추가하였다. 두 번째 항목인 '기호, 문장형식, 패싯지시어, 어휘, ...' 등은 항목의 유형을 나타낸다. 세 번째 항목인 '<본디말>, <구어>, <방언>, ...' 등은 어휘의 속성을 나타내며, 언제나 해당 어휘의 참조정보가 된다. 유사동의어의 반의어 및 관련어의 반의어는 각 해당 용어에서 반의어관계가 정의되므로 생략하였다. 필요하다면 이들 반의어를 본 구조에서 중첩하여 표시함으로써 함께 참조할 수는 있을 것이다.

'패싯'은 다의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빠르다'는 '시간, 움직임, 과정, 성질, 인지력, 경사' 등의 측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게 되며 이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패싯을 사용한다. 다만 이 '패싯'은 표제어의 패싯 뿐만 아니라 해당 관련어 전체의 패싯이 된다. 예컨대, '빠르다'의 패싯이 '시간'이 되면 동의어인 '이르다'의 패싯도 '시간'이 된다. '외국어' 항목에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외국어가 올 수 있으므로 각 외국어를 구별할 수 있는 관계지시어가 필요하다. '분류'는 특정한 분류체계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함의'는 2차적 의미, 부차적 의미를 가리킨다. 예컨대, 색이 '붉

다'는 용어는 "빛깔이 핏빛 또는 익은 고추의 빛과 같다"는 의미를 가지며, 부차적 의미로 '일편단심, 공산주의'를 의미한다.

관계의 일부를 예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깝다 <본디말>

한자	近, 邇	
패싯	거리	
정의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 사이의 공간 혹은 시간적 거리가보통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동의어	가직다	<방언>
	가찹다	<방언>
	갓갑다	<고어>
유사동의어	근접하다	
반의어	멀다	
관련어	근접하다	
	짧다	
용례	여기서 수원까지의 거리가 가깝다.	
어원	갓(뜻: 눈(目))	
격관계	NP-가 Adj	

가득하다 <본디말>

패싯	상태	
유사동의어	그득하다	<큰말>
관련어	그득하다	
용례	물통에 물이 가득하다.	

달다 <본디말>

한자	甘	
패싯	맛	
정의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	
유사동의어	달착지근하다	<파생어>
	달코롬하다	<파생어>
	달콤하다	<파생어>
	달큰하다	<파생어>
	들척지근하다	<파생어>
	들큰하다	<파생어>
반의어	쓰다	
어원	입(口)	
용례	이 수박은 매우 달다.	

붉다 <본디말>

한자	赤	
패싯	색	
정의	빛깔이 핏빛 또는 익은 고추의 빛과 같다.	
유사동의어	불그레하다	<파생어>
	불그스름하다	<파생어>
	불그족족하다	<파생어>
	빨갛다	
	뽈그리하다	<파생어>
반의어	푸르다	
관련어	빨갛다	
함의	일편단심	
	공산주의	
어원	불(火)	
용례	고추가 붉다.	

빠르다 <본디말>

패싯	시간	
정의	어떤 것이 시간적인 순서에서 다른 것보다 앞선 상태에 있다.	
동의어	빨르다	<구어>
	이르다	
반의어	늦다	
관련어	이르다	
용례	여기에 도착한 것은 나보다 네가 빠르다.	
영어	fast	

빠르다 <본디말>

패싯	움직임

정의	움직이는 속도가 보통 정도를 넘는 상태에 있다.	
동의어	빨르다	<구어>
유사동의어	날쌔다	
	신속하다	
	재빠르다	
	잽싸다	
관련어	급하다	
	날쌔다	
	바쁘다	
	신속하다	
	재빠르다	
	잽싸다	
반의어	느리다	
	더디다	
용례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빠르다.	
영어	fast	
	quick	

5 결론

형용사가 가질 수 있는 용어관계를 분석하고 정보처리에 관련이 되는 관계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관계요소의 표현구조를 제시하였다. 표현구조의 특징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계층관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둘째, 동의어와 유사동의어에 대하여 해당 어휘의 속성을 기술하여 서로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다의성이 있는 어휘에 대하여 패싯을 두어 상이한 의미단위로 별도의 용어구조를 갖게 하였다.

형용사 용어관계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며, 형용사 시소러스도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일은 어휘를 수집하여 분류하고 관계를 정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시간과 지적 노력이 많이 필요한 노동집약적인 작업이다. 형용사 시소러스에 관한 연구와 결과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준하, 김병선 엮음. 1991. 『한국어 형용사사전』. 서울: 계명출판사.

박창수. 1980. 『형용사 어휘의 분류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어학교육전공.

서정범. 2001. 『국어어원사전 (Trial)』. 동방미디어. [인용 일자 2002. 7. 26]. <http://www.koreaa2z.com/kd>

손용주. 2000. 『국어어휘론 연구방법』. 대구: 문창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편. 1998. 『연세 한국어 사전』. 서울: 두산동아.

유현경. 2000. 국어 형용사의 유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Korean Adjectives). 『國語學』, 36: 221-260.

이재윤, 김태수. 1999. WordNet과 시소러스. 『언어정보의 탐구』, 1: 233-269.

임홍빈. 1994. 『뉘앙스 풀이를 겸한 우리말 사전 : 상세한 뜻풀이와 뉘앙스, 용법의 해설』. 서울 : 아카데미하우스.

조미정. 1987. 우리말 형용사의 특징과 문법동사 -하의 관계. 『국어국문학』, 97: 193-203.

최현배. 1984.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Miller, K. J. 1998. "Chapter 2. Modifiers in WordNet". In: *Wordnet : An Electronic Lexical Database*. Edited by Fellbaum, C. Cambridge, Mass: MIT Press.